

제103회기 웨신 총회 노회 임원 워크숍

미, 글로벌노회 신설, 본 교단가입 화합의장 이루어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은 지난 11월 5일(월)-6일(화)까지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호텔에서 2018년도 총회, 노회 임원워크숍을 가졌다. 사진 왼쪽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총회장 허창범 목사.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총회원 모두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증경총회장 이영봉 목사의 축도가 있은 후 총무 이준영 목사의 광고, 연합노회 노회장 최이삭 목사의 저녁식사기도를 한 후 단체기념촬영이 이어졌다.

저녁식사를 마친 오후 7시 제1부총회장 박정근 목사 인도로 신인양 목사의 기도, 호남노회 부회계 이경재 목사가 국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으며, 허창범 총회장은 제103회기 총회 신.임원들, 총회산하 각 노회 신임 노회장들을 축하하며 취임패를 수여했다.

이어 1교시는 직전부총회장 신인창 목사의 사회로 총회임원과 각 노회임원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해외글로벌노회(노회장 이뇌용 목사)를 신설하고 웨신총회에 가입절차에 앞서서 서용구 목사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지요한 목사가 성경봉독(마 5:13-16)하고, 호남노회 윤석희 목사가 특송을,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라는 2018년 103회기 총회 노회임원 워크숍 주제를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허창범 총회장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오늘 우리도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거룩하고 능력을 갖춘 주의 종들이 될 것을 강조하면서 목회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자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한 새로운 시대,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꿈꾸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기남 목사는 특강을 통해 “새로운 시대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세우야 하는가?” 첫째, 이 시대를 진단하고, 둘째, 원리를 찾고, 셋째,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김 목사는 교회 개혁 7계령 가운데 첫째,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양육의 전문가가 되게 하라, 둘째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게 하라, 셋째로 모든 성도들을 성경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개척하는 인치체를 진행하라. 다섯째는 목사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설교를 하게 된다. 여섯째는 사람을 끌고 오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불러들이

는 교회가 되게 하라. 일곱째로 교회가 세상의 청정지역이 되게 한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하는 “에심코칭”목회에 대해 강의했다.

3교시에는 총회 및 노회 행정을 주제로 노회관리와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에 대해 총무 이준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1. 교회의 정치, 2. 회의의 진행법, 3. 노회의 기본예식 자료, 4. 노회의 기본행정양식 자료에 대해 열강을 펼쳤지만 주어진 시간관계로 아쉽게도 내년을 기약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웨신총회는 6일 아침 7시 중앙노회장 지요한 목사의 인도로 폐회예배가 시작되어 부서기 조영신 목사의 기도, 부회의록서기 최선녀 목사가 창세기 26:12-22절 봉독하고, 제1부총회장 박정근 목사는 “이삭이 부릅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축도로 증경총회장 이흥규 목사, 총무 이준영 목사의 광고, 제2부총회장 정순옥 목사가 총회장 허창범 목사에게 축하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어 동서노회장 이병만 목사의 식사기도로 회기에 대한 가운데 조찬을 가졌으며, 이날 식사대접은 허창범 총회장이었다.

아울러 각 노회별로 모임을 갖고 대둔산 단풍관광길에 율양으며 저마다 단풍에 취해 “참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각자 성가 찬양을 회회로, 일터로, 가정으로 향해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교연, 서울역 신생교회서 “2018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

김장김치 6500kg 노숙인 무료급식소, 미혼모 청소년 독거노인시설, 탈북민 가정 등에 전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이 지난 11월 8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역 노숙인 급식센터인 신생교회 해돋이마을(김원일 목사)에서 사회 빈곤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6500kg의 김장을 담가 현장에서 전달하며 초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훈훈하게 데웠다.

한기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가 주관한 “2018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 행사에는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탈북민 봉사자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해 4시간여 동안 총 6500kg의 김장을 담갔으며, 이를 10kg 660박스에 포장해 현장에서 7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별히 이번 김장은 탈북민 여성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팔을 걷어부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서울역 신생교회(김원일 목사) 노숙자 급식소를, 일터로, 가정으로 향해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일 한해도 많은 일을 했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의탁노인보호 살림교회(최아론 목사), 탈북민 30가정 등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교회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 되었다.”

한기연이 해마다 11월초에 진행해 온 김장나눔대축제는 올해로 4회째로 특별히 이번에는 지난 해 김장나눔 행사를 견학했던 탈북민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30여 명이 참여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에 구슬땀을 흘림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개회예배는 여성위 서기 공선영 전도사의 사회로 성경을 목사(평택명문교회)의 기도, 이혜경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겨울이 오기 전에”(담후 4:19-21)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사회위원장 김효종 목사(호연 총회장)가 격려사를,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가 인사

를, 김원일 목사가 담당한 후 이동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일 한해도 많은 일을 했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의탁노인보호 살림교회(최아론 목사), 탈북민 30가정 등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교회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 되었다.”

한기연이 해마다 11월초에 진행해 온 김장나눔대축제는 올해로 4회째로 특별히 이번에는 지난 해 김장나눔 행사를 견학했던 탈북민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30여 명이 참여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에 구슬땀을 흘림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개회예배는 여성위 서기 공선영 전도사의 사회로 성경을 목사(평택명문교회)의 기도, 이혜경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겨울이 오기 전에”(담후 4:19-21)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사회위원장 김효종 목사(호연 총회장)가 격려사를,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가 인사

를, 김원일 목사가 담당한 후 이동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CTS 신임 공동대표이사 이·취임 감사예배

1995년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개국한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6일(화) 서울 노랑진동 CTS아트홀에서 <공동대표이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22대 공동대표이사로서 김형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와 이승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가 새롭게 취임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는 20대부터 공동대표이사로서 섬기고 있다.

지난 한해 CTS 공동대표이사로서 역임했던 최기학 목사(전계현 목사는 “세계 방방 곡곡 CTS에서 송출하는 복음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며 CTS가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더 활기차게 나아가도록 기도해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새로 취임한 신임 CTS 공동대표이사 김형석 목사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모든 교회와 교단이 연합하여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CTS를 통해 그 사역들이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승희 목사는 “순수복음방송 CTS의 가치를 위해, 이 혼란한 사회가 새로워지도록 함께 더불어 섬기며, 기도하고, 모든 교단의 역량을 모으도록 힘쓰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CTS의 사역을 격려해주시고 큰 힘이 돼주신 최기학, 전계현 21대 공동대표이사님께 임직된 모두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말을 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설교를 전한 연도교회 이성희 목사(CTS 20대 공동대표이사), 장차남 목사(CTS 10대 공동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교단 대표

와 성도 1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3년 동안 대표적 종교방송으로 자리매김한 CTS의 신임 공동대표이사 취임을 축하했다.

축 2018년 추수감사주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보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 107:1)

총신대 이사장 이규필 목사	총신대 학장 윤석철 목사	총회장 강대일 목사	목회대학원장 서동기 목사	제1부총회장 정호석 목사 (사랑의교회)	제2부총회장 윤용섭 목사 (안빛교회)	서기 임상국 목사 (전북복지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 (시헌대교회)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 (동성안교회)	부회의록서기 김주현 목사 (발라벨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 (전북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	----------------------	-------------------------	---------------------------------	--------------------------------	------------------------------	------------------------------	--------------------------------	---------------------------------	----------------------------	-----------------------------	----------------------------

합동보수교단은 뜻을 같이 할 교회와 기관, 교단 가입을 환영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총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FAX 496-0181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샘터11월호 소강석 목사의 '행복이정표'

『돌아갈 수 없기에 더 그리운 시절』

한국인이란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시는 한국인의 무의식에 잠복해 있는 문화적 심성 구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어느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한없이 어리지는 듯하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나 역시 그 시를 생각할 때마다 한 소녀가 떠오른다. 초등학교 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고향의 유지였다. 소녀는 도시 아이처럼 좋은 옷을 입었으며 얼굴도 하얗고 예뻐다. 한번은 반에서 노래 경연회를 했는데 그 노래 제목이 <엄마야 누나야>였다. 그때 내가 제일 잘 불렀다고 박수를 받았지만 정작 운동장에 모여 있는 전교생 앞에서 반 대표로 노래를 부른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소녀였다. 그 아이 엄마의 치맛바람 때문이었다.

나는 몹시 섭섭하였지만, 소녀가 예쁘고 좋아서 었는지 박수를 쳐주었다. 지금도 이 노래만 부르면

그때 그 소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철새들이 수십 번을 날아오고 날아갔다. 그래도 그때의 일은 날아간 철새처럼 잊힌 듯하지만 다시 날아온 철새처럼 이따금 추억의 상념이 되어 떠오른다.

그러다가 한번은 고향으로 집회를 가서 우연히 그 소녀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 아이는 지방 어느 도시에 살고 있었다. 얼마 뒤 마침 집회를 위해 그 지역에 방문할 일이 생겼다. 여기까지 온 김에 친구를 만나고 싶어 전화를 해보았다. "나 초등학교 친구 강석인데 나 기억하고 있니? 그때 네가 내 대신 나가서 노래 불렀잖아, 기억 나? 마침 이 지역에 집회가 있어서 연락해봤어. 너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래? 아니면 만나서 같이 식사해도 좋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TV 화면으로 나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면서 자꾸 피하는 것이다. "아니 나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왔어. 그리고 네 남편도 같이 나와. 우리도 몇 년 있으며 회갑인데 더 늦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 나중에 다른 친구로부터 그 친구가 인생의 많은

고난과 풍파를 거치면서 현재의 삶이 변변치 않아서 피했던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야기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구절이 더 가슴 저리게 다가왔다. 안도현의 시 구절처럼 곧 가을 단풍은 가을엽서처럼 낮은 곳으로 떨어질 텐데, 유년의 소중한 추억들이 내 머릿속에 단풍처럼 물들어 가는 듯하다.

이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인 이어령 교수는 이 시에 나오는 강변이 남성적 공간이 아니라, 여성적 공간이라 평했다. 따라서 소월 시인은 지금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성적 공간인 강변에서 엄마와 누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은 '토포필리아(topophilia)'적 표현이다. 토포필리아라는 말은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라는 말이다. 그래서 소월은 여성적 공간인 따뜻한 강변, 즉 자연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강변이라는 공간에서 포근한 삶을 느껴보고 누리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빠와 형'은 남성적 공간이요 비자연의 공간이며 전쟁과 경쟁이 치열한 문명의 공



그림 박지영

가 들리면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내 어린 시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우린 다시 그 강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우린 영원히 그 강변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돌아갈 수 없기에 더 그립고 아련한 유년의 강물은 언제까지나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흐르고 또 흘러가리라.

아, 금모래빛 빛나던 유년의 강변, 갈잎의 노래

“미국의 영적 각성 및 부흥운동이 이 땅에...”

지난 28일 은혜한인교회서 2018다민족연합기도대회 개최



남편께서 역사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교계 지도자 및 다민족지도자, 목회자와 성도들은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했다.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는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라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려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선출 되어야 하기에 부흥과 선거를 위해 비상하게 기도하는 밤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책 힘스 목사(갈보리채플 담임)는 주세설교를 통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시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바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늘

임재 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자"고 말했다.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라인인터센드 대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깨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남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 은혜한인교회 권사 성가대 및 연합성가대, 진리와사랑크리스천교회 찬양팀의 특별찬양, 소프라노 지경 집사, 코리 벨과 마크 켈러의 특송 및 박종술 목사의 인도로 CRU & Elim연합찬양팀이 찬양과 경배를 한 후, 다민족 목회자들이 다양한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개(Repentance-민경명 목사) : 스우리 자신들의 잘못들: 박형준 목사 스나라가 범하고 있는 잘못들: 배승연 목사 스역사속의 잘못들: 서오석 목사 스목회자와 부모들의 잘못들: 이은향 목사, 부흥(Revival)-조오지 퓨엔테 목사,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 회복(Restoration-김우준 목사), 스가정 회복: 김철민 장로 스교육, 문화 회복: 유우연 교육위원장 스교회회복: 윤대혁 목사스생명보호(나



대반대): 샘신 목사, 사회정의(Social Justice-윌터 터크 목사) 스인종차별, 임신매매, 가난문제(윌터 터크 목사) 스사랑과 섬김: 안병돈 장로, 선거와 지도자(Election & Leaders-김한요 목사), 스대통령과 부통령: 김기동 목사 스행정부장관들: 샘 한 목사 스사법부, 임법부: 조현영 목사 스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시장들: 신현우 목사 스선거: 안병권 목사

차세대와 선교(Next Generation-임규서 목사), 스캘리포니아주: 케이틀린 한 스교사와 교수들: 데이빗 조 목사 스청년부흥: 더글라스 김 목사 스목회와 선교지망생: 샤인 김 목사 스세계 모든 지역의 선교사들: 강태광 목사, 기도가 필요한 나라들, 스이스라엘: 엘머 잭슨 목사 스중동: 카토 대우도 목사 스북한: 정장수 목사 스일본: 박용수 목사 스남미나라들-

레오나도 퓨엔테 목사 등이 기도한 후, 조오지 퓨엔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정현 기자 153@christianvision.net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04-07837번(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교본: 피종진목사 이사장: 허창범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장기남목사

-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분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 E-mail: jtpress@hanmail.net / jtntvcjp@naver.com
- 전화: 전화: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 H.P: 010-5468-6574
-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 1년 구독료: 48,000원
- 후원계좌(예금주: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A3 칼라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습니다.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90%)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정도

(2018년 기독교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270만원 → 170만원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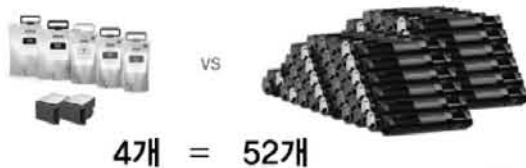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카세트에서 주보가능)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가능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대용량 용지 급지대 지원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로 유지비용 절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4개 = 52개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번에 주문하시는 교회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 C, M, Y 4개)를 더 드립니다.

(250매) (550매)

특별 할인

소모품비용 90% 절감!



주식회사 영광기업 TEL. 1588-0691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010-3651-8572, 010-5779-0691 인천공장: (계양구청 앞) 032-551-4114

엘 드림 <중·고> 학교 이사회 간담회 및 추대식 가져

세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내일을 여는 비전이 있는 학교로



좌 엘 드림학교 김정남 운영위원장 중 노장덕 교장 우 임병재 이사장

2016년 11월 12일(월) 오후 6시 경기도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한 운중본가 장수촌(대표 박흥기)에서 엘 드림(중·고) 대안학교 개교를 위한 이사회 간담회 및 위촉식이 있었다. 엘 드림 학교 이사회 간담회 및 위촉식은 내정된 이사장 임병재 목사(엘드림교회 담임 / 사)한국청소년바로세우기 운동협의회 법인이사와 운영위원장 김정남 감독(전 월드컵 국

가대표팀 감독 / 현 대한직장인 축구연맹 명예회장) 등 내외빈을 모시고, 노장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였다. 김정남 운영위원장은 이사장으로 내정된 임병재 목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이사장 임병재 목사는 김정남 운영위원장에게 위촉패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임병재(엘 드림교회 목사) 이사장은 운영위원, 상임이사, 홍보이사, 자문위원 등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노장덕 교장이 축구부장을 맡아 섬김 전 국가대표 최성국 선수에게 위촉패를 전달하였다. 이어 임병재 이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해 엘 드림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과 또 섬기는 교회가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김정남 운영위원장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저희 엘 드림학교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세워진 학교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행정 쇄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며 “믿음이 있는 학교, 기쁨을 주는 즐거운 학교, 내일을 여는 비전이 있는 학교, 아름다운 행복을 주는 사랑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기도와 관심 그리고 교육방향에 대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엘 드림학

교 교장으로서의 교육철학, 이념, 목표, 교훈, 비전에 대하여 밝혔다. 엘 드림학교의 교육과정은 첫째, 신앙교육과 둘째, 인성교육(치로상담, 체험학습, 봉사활동, 극기훈련, 교육예절) 그리고 셋째, 특기개발 교육(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여 전문인으로 양성)의 과정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려고 한다. 엘 드림학교는 12월 10일-22일 까지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 1월 5일까지 학생을 모집하여 2019년 1월17일-18일에 1차 학생캠프를 개최한다고 한다. 한편 엘 드림학교는 2019년 1월 14일(월)에 학교 개교 감사예배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엘 드림교회(임병재 목사 / 이사장)에서 내외빈을 모시고 드릴 예정이다. 문의 / 교장 노장덕 목사(010-8289-876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2018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노회노회장 양정섭 목사와 8개 노회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노회 갖고 사무보고 및 재정보고를 받았다. 임정태 목사(중부노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이영춘 목사(중앙노회장)의 기도, 임정태 목사(중부노회장)의 성경봉독, 양정섭 목사(서울노회장)의 설교, 한세진 목사(월례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에서 양정섭 목사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자(눅15:1-7)”라는 제

목의 설교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생각해야 할 말씀을 전했다. 첫째, 주님은 “아흔 아홉이 크지만 거기에 더 귀한 하나”를 말씀하셨다. 죄인 한사람이 회개하면 여인 아흔 아홉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생각인 것이다. 구원받은 영혼 하나는 온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도야말로 너무나도 크고 귀한 일이다. 둘째, 주님은 “열두제자도 귀하지만 귀한 어린이”를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다고 하셨다. 주님이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은 인간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다. 셋째, 주님은 “많은 헌금보다 두 렵돈”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주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않으시며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해야 하며,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판단기준을 잘 깨닫고 만사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는 어지러워진 현실을 기도로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한다. 이날 노회에는 김승혁, 최종면, 김재순, 이효열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각 노회에서 총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서울노회는 양정섭 목사가 노회장에 유임되고, 중앙노회장 이영춘 목사, 중부노회장 임정태 목사, 서부노회장 이순례 목사, 경기노회장 박영원 목사, 인천노회장 한성욱 목사가 노회장으로 유임되고, 미국 워싱턴노회는 김경희 목사가 노회장으로, LA노회에 신현주 목사가 노회장으로 각각 유임됐다.

새에덴교회 설립 30주년 맞아 김장 1만포기, 쌀 5천포 전달

용인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대사회적인 30가지 섬김 사역의 일환으로 사랑의 쌀, 김장 나누기 전달식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날 교회주최에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직접 김장 김치 1만 포기를 담는 장관도 펼쳐졌으며, 백군기 용인지역장도 직접 참석하여 소강석 목사와 함께 김장 김치를 맛있게 마무리했다. 백군기 시장은 “교회의 섬김과 나눔은 헬렌이 아니고 텃세이자 고풍”이라며, “새에덴교회의 섬김과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고 새에덴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담은 김장 1만 포기는 용인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되었으며, 쌀 5천포는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6기관에 전달되었다. 소강석 목사는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복지시설과 결혼가정, 중증환자, 신학교, 미자립 교회 지원 등등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눔과 섬김을 통해 흘려보낼 것이라고 그리



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새에덴교회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 소강석 목사는 이날 이번 나눔에 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약 40억의 예산이 쓰여 지고 있으며, 포부를 밝혔다.



한기보협, 제8회 미스바 회개 기도회 열어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이하-한기보협)는 지난 10월 23일(화)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강서로 호영빌딩 6층 한기보협 비전센터에서 1부 개회예배, 2부 “애국의 심령으로! 현실 직시”라는 주제로 특강을, 3부 제8회 미스바 회개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인도로 김영희 목사(법인이사)의 기도, QBC총회 윤병희 목사가 성경봉독(요14:13), 문화예술위원회 찬양단의 특송, 공동회장 이창희 목사는 “천국 처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헌금송에 설교자 이창희 목사의 색소폰 연주, 헌금기도에 오순절 총회 박정욱 목사,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 사

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예장(합동보수)총회장 이우식 목사의 축도 순으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특강은 탁원숙 목사(기독교대학한자유감리회)의 기도와 문화예술위원회 찬양단의 특송에 이어 공동회장 이근 목사(기독교대학한자유감리회 감독)는 “애국의 심령으로! 현실 직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국가안보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와 민족의 안보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어 예영수 목사(한국기독교교역성서총연합회)의 축도가 있었다. 3부 제8회 미스바 회개 기도회는 중부회장 진공열 목사의 진행으로 1. 미스바회개 기도회를 위하여 공동회장 김주상 목사, 2. 기업인들과 위정

자들을 위하여 예장(합동전통)총회 백창준 목사, 3. 나라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새일꾼선교회 한치호 목사, 4.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독교대학한자유감리회 탁원숙 목사, 우리나라 다문화 복음화를 위하여 QBC총회 윤병희 목사, 6. 동성애 헌법개정 법제화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예장(예측) 김명옥 목사, 7. 한기보협과 각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예장(호헌)총회 박금옥 목사 등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회를 마쳤다. 끝으로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말씀과 예장(개혁)총회 조정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한기보협은 11월 20일(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교역성서총연합회에서 예영수 목사를 강사로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축 2018. 추수감사 예장진리총회 · 대한노회 임원일동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계7:12)

주제 :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계 1:3절)

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전상렬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김정미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정요한 목사 (공의교회)

본 교단은 주 안에서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교회 및 노회, 총회의 영입을 적극 환영합니다.

: 총회 / 노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노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총무/서기 : 박민규 목사 H.P 010-9621-9627

■ 靑松 건강칼럼 (664) 밥상 위 '주연급 조연'

김치 宗主國의 김장문화

최근 우리나라 사계절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여름은 지나치게 빨리 와서 늦게 떠난다. 한편 가을은 너무 늦게 오고, 그리고 너무 빨리 떠나 우리를 아쉽게 한다. 가을 들녘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정에서는 김장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매년 이맘때쯤 무명으로 '시래기' 건조작업을 시작하여, 잘 마른 시래기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철 별미'로 출하된다.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김장은 예로부터 가족들이 겨우내 먹을 김치를 준비하는 큰 행사로서 지역마다 김장 담그는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대개 11월 중순께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12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김장 문화'는 2013년 12월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김장은 가족이 기초가 된 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여러 세대(世代)에 걸쳐 전수됐으며, 독창적이고 유익한 발효 식품(醱酵食品)인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치(Kimchi)가 세계화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1984년 LA올림픽에서 선수용 공식 음식으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도 김치가 선수들에게 제공되었다.

김치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부각된데 이어 2003년 사스(SARS)가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사스가 아시아 전역에 퍼졌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감염자가 거의 없었고 감염자도 건강을 회복했다. 이에 해외 언론들은 '한국인들이 김치를 먹어 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여 김치의 명성이 확고해졌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롯데그룹 47개 계열사 임직원 1100여 명과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이 '사루트 봉사단 어울림 김장 나눔' 행사에 참가하여 2시간 30분 동안 40t의 김치를 담갔다. 이들 봉사단이 정성껏 담은 김치는 4천여 개 상자에 담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국 각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옛적에는 밥과 김치가 추운 겨울을 살아내게 한 생명의 음식으로 사람들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을 제공하는 밥을 식량(食糧), 무기질과 비타민 등을 제공하는 김치를 반식량(半食糧)이라고 불렀다.

김장은 한국인에게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기 전에 각 가정은 연료 준비와 함께 김장을 해둬야 했다. 김장김치를 짧게

는 4-5개월, 길게는 1년 내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배추 수백포기와 무 수백개를 김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엔 김장을 하더라도 4인 가족의 경우 배추 10-20포기 담그는 게 일반적이다.

1970년대까지 김장하는 날은 이웃끼리 '김장곶말이'를 했기 때문에 온 동네가 잔칫날과 같았다. 1980년대에는 친척 중심으로 '절임 배추'와 김치 양념의 역할도 크다. 이에 절임배추, 김치 양념 등 가공된 형태의 재료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은 김치 하면 당연히 배추김치를 생각하지만, 배추는 20세기 전반까지도 귀한 식재료였다. 배추는 서거정(徐居正·1420-1488)의 '배추'란 시에 '정색 백색이 섞인 싱싱한 배추'로 처음 등장하지만 국이나 나물로 먹었다. 배추로 담은 김치는 17세기 후반 김수증(金壽增·1624-1701)의 곡운집(谷雲集)에 겨울 김치로 처음 나온다. 그러나 배추는 속이 차지 않는 비결구(非結球)형 배추로, 줄기 사이가 성글어 양념 속을 풍부하게 넣어도 자주 빠져나오는 단점으로 김치로는 드물게 사용했다.

오늘날과 같이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꽉 찬 결구배추(heading chinese cabbage)는 중국 산동성에서 18세기 말 한반도로 넘어와 19세기 초반부터 국내에서 재배됐다. 결구배추의 초록색 배춧잎을 벗기면 보랏빛 노란 배추 속살이 드러

난다. 과거에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무채와 새우젓, 굴, 고춧가루를 배춧잎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독에 담아 땅속에 묻으면 김장은 끝이 난다. 그리고 방금 담은 김절이 김치에 돼지고기 수육을 곁들여 막걸리 한 사발로 행복한 노동을 마무리했다.

김장김치는 배추, 무 등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 음식이다. 저온(低溫)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발효시켜야 하기에 우리 조상들은 온도가 일정한 땅속에 묻어 보관했다.

또한 한겨울에 김치가 얼거나 시지 않도록 김치독을 짚으로 싸서 묻고, 눈이나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김치광을 만들기도 했다. 김치 발효에 유산균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항아리에 김치를 담을 때 빈틈없이 꼼꼼하게 눌러 담아 공기를 빼고 그 위에 우거지를 얹어 공기 접촉을 막았다.

1980년대 말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방식이 되면서 김치 항아리를 묻을 공간이 사라졌다. 이때 등장한 것이 '김치냉장고'다. 1984년 LG전자 전신인 금성사의 김치냉장고를 필두로 대우전자, 삼선전자가 제품을 내놓았지만 단지 김장김치를 저온에서 냉장시키는 기능만 있었기 때문에 인기를 크게 끌지는 못했다. 그 후 1995년 발효 기능을 가진 만도기계의 김치냉장고 '딤چه'가 출시돼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김치냉장고가 김치를 전문으로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기능이 있어 가정의 필수 가전(家電)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2019년형 김치플러스'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뿐만 아니라 바나나, 감자 등 보관이 까다로운 여러 식품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더욱 전문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김장김치는 지역마다 종류, 이름, 조리법 등이 다르다.

김장김치가 지닌 맛의 지역성은 멸치젓, 새우젓, 조기젓 등 어떤 젓갈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구분했다. 즉,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서는 주로 멸치젓을, 충청도와 경기도에서는 새우젓을 사용했다. 충북과 강원도는 젓갈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김장 조리법이 1960년대 이후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134만 3000t, 가을무 생산량은 약간 증가한 46만 1421t으로 예상했다. 서울가락시장 관계자는 가을배추 11월 중순 가격은 평년(5342원, 10kg上品 기준)에 비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가을무는 평년 가격(1만39원, 20kg上品 기준)에 비해 내림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축제장에서 '2018 평창

고랭지(高冷地) 김장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김장문화 전통을 살리고 평창 고랭지배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2016년에 시작되었다. 해발 600m이상의 고지대에서 생산된 고랭지배추는 속이 노랗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장에서 절임배추 8kg과 양념 3kg이 4만5000천원에 판매하며, 기호에 따라 추가 양념은 직접 구입하면 된다.

봉우리김치문화원이 추천하는 김장김치 담그기는 주재료 절임배추 4포기(7kg)로 김장을 할 때 부재료는 무 1kg, 배 1개, 홍갓 200g, 쪽파 200g, 미나리 150g, 생새우 200g 등이 필요하다. 양념은 다시마물 2컵(다시마 10g+물 1리터), 참쌀죽 2컵(참쌀 1컵+물 7컵), 고춧가루 350-400g, 다진 마늘 300g, 다진 생강 60g, 멸치가루 1큰술, 멸치액젓 350g, 새우젓 80g 등이다.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에 담긴 김치가 다른 계절에 담긴 김치보다 더 시원하고 맛있는 이유는 김치의 맛을 담당하는 '류코노스톡(leuconostoc)' 유산균의 비중이 불철 대비 약 137%, 가을 대비 약 176%로 현저히 높았다. 김치 발효를 주도하는 3대 유산균은 류코노스톡, 와이셀라, 락토바실러스 등이다. 이중 류코노스톡은 시원한 단맛을 내는 '만니톨'과 청량감을 주는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김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 있는 발효 식품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우리나라의 김치 규격을 국제규격으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인정된 김치 중주국(宗主國)이지만, 최근의 상황은 중주국의 위상이 민망하게 흔들리고 있다. 즉 중국산 김치가 외식업소를 장악하고 있으며, 군대급식에 사용되는 김치 원료와 완제품도 대부분 중국산이다. 김치 소비량도 연간 1인당 1990년 35kg이던 것이 2015년에는 25kg으로 감소했다.

저가(低價)입찰 방식으로 인하여 국내 김치공장의 근대납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군대급식에 사용되는 김치를 전량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연간 519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

우리나라 김치 수입량은 2010년 19만 2937t에서 2017년 27만5631t으로 증가했으며, 수입 김치의 99%가 중국산이다. 한편 우리나라 김치 수출량은 2005년 3만2307t에서 2017년 2만4313t으로 줄었다.

현재 국산 김치가 가격경쟁으로 중국산에 맞서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산 김치의 품질 차별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안정적인 원료 공급 등이 시급하다. 올해 김장절에는 각 가정에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몸에도 좋은 김치를 몇 포기씩 더 담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김장문화 활성화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 판매확대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김치 중주국'의 명성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마약과전쟁(2)

헤로인 중독성 마약이란?



홍성선 박사
마약정보학박사
NGO세계기독청 설립이사장

마약사용과 뇌

엑스타시, MDMA, 가장 대표적인 합성마약 중의 하나이며 신경계통의 속도를 빠르게 하며 뇌의 생각, 기분, 기억력, 그리고 지각력을 통제하는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엑스타시의 사용은 혼동, 우울증, 과대망상증, 근육과파, 통제불능의 진전, 중풍, 장기적 뇌세포손상을 일으킨다.

▶사회적 건강 : 심지어 잠간 실험을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했던 행동을 나중에 후회한다. 마약남용은 친구와 가족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약사용으로 인해 심대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학교팀으로부터 물러나고 그리고 종종 법적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약남용은 모든 범죄, 자살, 또는 원치 않는 사고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중독주기(Cycle)에 대한 이해

마약을 실험한 심대들은 부작용이나 혹은 원치 않는 반응(반작용)을 보인다. 이 부작용은 어지러움과 두통에서부터 의식의 상실과 죽음 심지어는 심대의 첫 번째 마약사용으로 인해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과거에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내성: 마약복용을 하는 사람의 몸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더욱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필요로 한다. ▶심리적 의존: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떤 약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기분을 좋게 느끼기에 필요하다고 믿는 상태를 말한다. 심리적 의존은 반복해서 발전한다. 사용자는 그 효과를 얻기 위해 계속적인 욕구를 갖는다. ▶생리적 의존: 마약사용자가 사용을 중단할 때 심각한 금단증상을 경험하게 될 때 생리적 의존 즉 마약사용자가 마약에 대한 화학적 필요를 갖는 상태를 말한다. 금단증상은 신경쇠약, 불면증, 심각한 어지러움, 두통, 구토, 오한, 경련을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 죽음을 초래한다. ▶중독: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리적 의존, 중독처럼 가장 무서운 부작용의 위험을 갖는다. 중독은 사용자가 마약을 해롭다고 알면서 끊지 못하고 끊임없이 강박적 충동으로 인해 사용하게 한다. 물질이 중독된 사람들은 전문인의 도움 없이는 끊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마약사용과 다른 결과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육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물질남용은 심대의 학교생활, 스포츠, 친구관계, 가정생활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마약의 남용은 강박감과 스트레스를 이미 그것들로 가득찬 삶에 더하게 만든다.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

마약사용은 개인의 여러 방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내성, 의존, 그리고 마약중독으로 발전하며 고통을 겪는다. 또한 마약사용은 감정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마약을 시험한 사람들은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쉽게 통제력을 잃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폭력으로 연결되어 진다. 물질남용은 또한 폭력범죄, 자살, 그리고 의도되지 않거나 의도된 죽음의 주된 요인이다. 마약사용은 억척력을 일으키며 그 결과로 성행위에 끌리게 되고 그것은 원치 않는 임신과 성행위에 의해 생기는 각종 질병에 노출된다.

마약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모든 심대들은 마약남용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 심대청소년들이 마약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동료압박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단체나 혹은 친구들의 조정이나 재촉을 의미한다. 마약남용을 피하는 친구나 그런 주변동료들과 어울리는 심대들은 마약을 사용하고 있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친구를 갖고 있는 심대들보다 마약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있을 때 "아니오"라고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축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포어 : **중은민남 행복만성도(신 33:29절)**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성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영교회원목회위원
- 행복샘전인리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의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성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경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교 기도회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성불량성인회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경상으로 고침 받음

송 예 배 시 간 내 송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시 동구 송사로 16길 11(신선동) 동대구 반도유보라 상가(2층)

WRTS WELLSVILLE REFORMED TRUST SOCIETY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 함.

◆ 과점수로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정수업으로(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신학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외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WS WELLSVILLE REFORMED TRUST SOCIETY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포어 : **하나님의 바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

2018 포어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 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일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람예배
- 수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당임목사 김창룡

상담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fc.kr

지저스타임즈 창간 13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2부 본지 언론부흥사협의회 제5차 정기모임 기도회 열어

내 허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시 25:1). 필객의 붓이 되리란 취지로 본지를 창간하게 되어 13년이 되었다. 현재 이사장 허창범 목사(예신총회장), 사장 소진우 목사(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발행인 정기남 목사는 지난 10월 26일(금)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길 소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본지 자문) 비전센터에서 본지 창간 13주년을 기념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렸다.

사무총장 광영민 목사의 인도로 감사예배가 시작되어 상임이사 조영만 목사가 기도를, 상임이사 이선한 목사(영광교회)의 성경봉독(창 39:13), 몸찬양에 이매 전도사, 이어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는 “그래서 형통입니다”란 제의의 말씀을 선포했다.

아울러 부사장 김창룡 목사(하나님 이디안신교회), 제1대 이사장 전영춘 목사가 축사를, 상임이사 홍환표 목사(사도영성신학원 학장),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예장진리 총회장) 등이 각각 권면했다. 이어 꾸미오리

기독교무용단(김창숙 목사/본지 상임이사)의 몸 찬양, 상임이사 김부경 목사가 봉헌기도를 했다.

이어서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의 인도로 신문사와 JTNTV 및 CP방송을 위하여, 문서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국내외의 50여 지사를 위하여, 본지와 MOU를 체결한 로스앤젤레스 크리스천비전신문, 비전복음방송사, 시니어타임즈US신문사, 크리스천헤럴드 AKTV18.10(www.aktv1810.com), 미주타임즈신문사, 애틀랜타 지사 등 제휴사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 도전에 빠져든 한국경제,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를 위하여, 회원들의 섬기는 각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 (사)한기보협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본지 자문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창간 13주년기념 감사예배를 마친 후 뷔페로 참석한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애찬을 나누고,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공동회장 김선우 목사의 기도로 이사회를 열고, 더

욱더 격려한 자세로 신문사를 섬기며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히고, 주기도문으로 이사회를 마쳤다. 이날 웨신총회 총회장 허창범 목사,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예장 예복총회 총회장 광영민 목사, (사)한국신문방송협회 총재 정서영 목사가 각각 화환을 기증, 축하했다. 이 외에도 합동보수망원측, 황덕광 목사, 합동보수직전총회장 이규필 목사, 참석하지 못한 이사들의 축전이 이어졌다.

이날 본방송신문의 13주년을 축하하며 물질로 협력해 준 부이사장 박정국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부이사장 정대성 목사 등이 좋은 선물을 제공해 주었기에 화기에 애환 가운뎃길 돌렸다.

한편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인사했다.

“오늘 창간 13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베에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립니다. 아울러 문서선교에 박차를 가하는데 항상 곁에서 기도해주시며 물질로 협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장 소진우 목사님,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께서도 문서선교를 위해서 전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신문방송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본지 제4대 이사장으로 본지를 운영하고 계신 허창범 목사님 그 외 부이사장님들, 부사장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여년 이상을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섬 없이 달려온 귀한 동역자 본방송신문의 사무총장인 광영



민 목사, 사무국장인 백운성 목사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본 언론사의 자문이시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님과 직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신문방송을 통한 문서선교에 앞장서서 기도해주시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곁에서 아내로서 분신처럼 비가 오나 눈이오나 묵묵히 이 일을 힘들다하지 않고 협력해주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랑스러운 친구 제 아내 성순희 여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본지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저스타임즈(jesus times)와 JTNTV 등 주간신문과 인터넷방송을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으며 현재 새롭게 오픈한 크리스천포토저널 CP방송이 있습니다. CP방송은 각 교회의 설교와 행사를 동영상으로 편집되어 방영되고 있습니다. 방송의 콘텐츠가 다양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본방송과 지저스타임즈는 수많은 언론사 선배들이 지퍼놓은 문서 전도적 사명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 나아가 기독교적 본질 그대로의 정신을 일깨우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시작한 언론사입니다.

본방송 신문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세상에 뿌리신 씨앗을 움켜잡고 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위해 섬 없이 달려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가 파급되고 부흥하기까지는 인내의 발전을 통한 성순희 여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세계 유례없는 성장을 보여준 한국교회 역시 문서와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부흥을 일궈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한국 교회는 당연히 빛을 발하여야 할 사역자들이 빛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개독교가 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

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 언론계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개혁시키는 역할을 우리 언론이 해 나가기 위하여 펜촉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지금껏 많은 기독교 언론인, 기독교의 혁신적 변화의 바람이 부는 현실에서 문서와 방송을 통한 언론이 지켜내고 감당해 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성찰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 방송, 언론은 기독교를 대변하며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기독교 안의 화합을 꾀하는데 한 몫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방송과 신문은 좋지 않은 일에 대해 침묵하거나 감언이설로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저스타임즈(JTNTV)와 크리스천포토저널(CP)방송은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협회 대표 한창환 국장과 협회에 소속한 기자들, 또한 한국기독교언론

협회에 소속한 기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펜촉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쉬어 썩듯이 부흥의 빛을 잃은 교회는 정체되고 만다는 생각으로 타협하지 않으며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정론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서울과 인천 전국 어느 곳을 보아도 밤이면 밤마다 교회들의 십자가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진작 영혼 구원을 위하여 외치는 교회는 심히도 적다고 봅니다. 또한 수 많은 언론이 있지만 뿌리 없는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때에 대해 침묵하거나 감언이설로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저스타임즈(JTNTV)와 크리스천포토저널(CP)방송은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협회 대표 한창환 국장과 협회에 소속한 기자들, 또한 한국기독교언론



안산시목회자축구선교단 제12회 총주사과배 우승

전국목회자축구대회에 출전한 500여 믿음의 동역자들

지난 10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 충주에서 제12회 총주사과배 전국목회자축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6개조 24개 팀 5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운동장을 누비며 심신을 단련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목회현장을 나누는 교제의 장을 만들었다. 올해로 12회째 이어져오는 충주시과 전국목회자축구대회는 명실

공히 전국 최고의 대회임을 입증 하듯이 전국 각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총주사과배 전국목회자축구선교단 오재선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2018년도 제12회 총주사과배 전국목회자축구대회에 출전한 500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본 대회의 취지는 충주시와 지역 특산품인 우수한 사과를 전국에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

조하고 오시는 목사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회를 거듭할수록 전국 목회자 축구선교단 목사님들의 많은 격려와 호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제12회 총주사과배 전국목회자축구대회 결과는 안산시목회자 축구선교단(이하 안목선/단장 박두환 목사)이 우승을 이루어 내고,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안목선은 일찍이 제5회 때 우승기를 한번 들어올린 팀이다. 안목선은 작년 11회에는 아쉽게 준우승하였다가 1년 동안 단장(박두환 목사) 이하 감독(손영수 목사)과 기술 감독(장철우 목사)의 지도아래 연습해온 결과 우승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안목선의 우승 뒤에는 추운 날씨에도 먼 길에 함께 동참하여 벤치에 앉아 묵묵히 응원을 아끼지 않은 증경 단장 이오중 목사(성산교회)와 강명구 목사(예일장로교회)의 선수들을 위하여 따뜻한 물을 끓여 선수들의

추운 몸을 녹여주는 훈훈함과 경기장에서 뛰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우승을 이루는데 한 몫을 하였다.

안목선은 예선을 통과한 후 16강전에서 처음 어려운 고비를 맞아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2골을 넣어 역전하여 8강으로 올라갔다. 8강전과 4강전을 치르는 고비고비마다 드라마 같은 일들이 펼쳐졌다. 25분 경기를 통해 판가름 나는 단판 결승에 오른 안목선은 강력한 우승팀으로 지목되던 수원팀을 맞아 폭발적으로 4골을 몰아넣으며 일찌감



치 우승의 길을 만들었다. 결승전에 3골을 넣어 헤트트릭을 기록한 고영철 목사(오산 수청교회)는 예선전에서도 4골을 넣는 대기록을 세웠다.

고영철 목사의 헤트트릭과 함께 안목선은 수원팀을 상대로 4대0으로 시

원하게 우승기를 들어 올리며 제12회 총주사과배 전국목회자축구대회를 마무리 지으며 제13회 대회를 기약하며 안목선 박두환 단장이 우승기를 멋지게 휘날리며 은혜로운 마무리를 지었다.

안산시 백운성 기사

피종진 목사 초청 11월 국내·외 부흥성회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EL: (02) 3411-9191
FAX: (02) 4011-7770
FAX: (02) 3411-9111

피종진 목사

- 4(주) 오후 서울 백합장로교회(김용표 목사) ☎ 010-5209-8333
- 4(주)~5(월) 서울 국제교회(강평강 목사) ☎ 010-8839-8899
- 5(월) 오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토론티연구소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 5(월) 오후 창원 은혜교회(피은혜 목사) ☎ 010-8540-8642
- 6(화)~8(목) 전주기도원(원장 김진홍 목사) ☎ 010-5228-0631
- 8(목) 저녁 안성 낙원교회(송강술 목사) ☎ 010-2728-3000
- 9(금)~10(토) 구미 방주교회(강영실 목사) ☎ 010-8280-0346
- 12(월)~14(수) 서울 예배다교회(정군자 목사) ☎ 010-3403-9190
- 15(목) 오후 광주 강남예일교회(허동빈 목사) ☎ 010-3064-8291
- 15(목)~17(토) 김천한광교회(안 혁 목사) ☎ 010-5503-0826
- 17(토) 오전 서울 예수홀리랜드(김경순 목사) ☎ 010-8462-5700
- 18(주) 저녁 서울 큰영광교회(윤영욱 목사) ☎ 010-7532-7731
- 19(월)~21(수) 청평 강남금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 (031) 584-1001
- 22(목)~24(토)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임미향 목사) ☎ 010-4511-0538
- 26(월)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제21차 해외성회(21th Overseas Assembly)

- 26(월) 일본(JAPAN) 시모노세 항해중 선상집회 (주최: CBS TV)
- 27(화)~28(수) 일본(JAPAN) 나가사끼현, 사세보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대회 (주최: 이이다 미즈마루 이사장)
- 29(목) 일본(JAPAN) 오무라, 히라도, 운제 순례 MT (주최: CBS TV 일본선교회)
- 30(금) 일본(JAPAN) 시마바라 (주최: CBS TV 일본선교회)

축 추수감사

“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히 12:2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2018년도 교회표어: 오직 예수 (히 12:2)

2020 VISION 광주에서 전세대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부목사: 김민경
협동목사: 유한주, 양연석
시무장로: 홍재용, 안종기, 허성준, 함용호
협동장로: 이창수

담임목사: 허창범
신학박사/교육학박사/예장웨신 총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1부8:00, 2부9:00, 3부11:00
주일오후: 오후1:30
수요예배: 저녁7:00
새벽예배: 새벽5:00
금요철야: 저녁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영무에다움 2차 후문 앞, 수완중 옆)
TEL : (062) 953-4620 H/P : 010-8604-6075

축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2018번성표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번성목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Min) 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34(갈마동 338-22)
☎교회: 042) 523-3191 FAX:523-3090 E-mail:pjk2863@hanmail.net

계시록 6장 강해(42)

검은 말 탄자의 정체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지난호에 이어서〉

5절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어린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셋째 생물이 나와서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합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이니,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이 오르는 곳이 어디인가?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에 계시가 있습니다. 각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이 오르는 곳은 마 17:1에 ‘따로 높은 산’입니다. 마 17:1의 ‘따로 높은 산’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 준 산입니다. 셋째 생물이 우리를 그곳으로 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시려는 영광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셋째 생물이 ‘오라’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생물이 그것을 보게 되면 그다음에 검은 말 탄자가 나와서 막장구름같이 하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즉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검은 말 탄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타락한 교회의 회개자들, 주의 종들이 검은 말 탄자입니다. 타락한 주의 종들이 검은 말 탄자이니까 자기에게 주실 영광을 전부 빼돌려 감부기같이 검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막장구름으로 하늘나라가 가려진 자들입니다.

타락한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협력하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여 이미 짐승표를 받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 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말하는 것은 교인들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표로써 짐승표를 받아서 육신 목숨을 연명하는 것입니다.

검은 말 탄 자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감부기같이, 막장구름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늘의 영광도 보고, 영생도 알고, 하늘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환란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지나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그 영광으로 무

장된 자들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심판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물이 땅 위에 심히 널리 퍼지니까 먼저 작은 산들이 잠기면서 점차적으로 온 천하의 높은 산들이 잠겼습니다. 물이 불어서 15큐빗 높이로 오르니까 최종적으로 또 산들이 잠겼다고 말씀했습니다(창 7:17-19). 홍수로 인하여 온 천하의 높은 산들이 잠긴 후에 또다시 산들이 잠졌다고 말씀하신 산은 천하의 산이 아닌 또 다른 산, 곧 천상의 산을 의미합니다.

산은 교회를 말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홍수로 인해 처음에는 작은 산들이 일반교회에 잠기고, 점차적으로 천하의 높은 산들은 일반교회 중에 최고로 부흥된 교회들이 잠긴다는 계시입니다. 또다시 물이 불어서 잠기는 산은 천상의 산으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신령한 교회도 잠겨버립니다. 결국 남은 것은 잿나무로 만든 방주 안에 있는 8명만 홍수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재림 때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물에 잠기듯 환란 날에 배도하고 말게 될 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홍수에서 구원받는 잿나무로 된 방주는 잿나무 같은 진리인 첫째 부활의 진리로 세워진 심령 성전만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로 미리 보여준 예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의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그때 네 생물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나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들을 그 영광에서 타락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흰말 탄 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받고 사람의 얼굴 같은 셋째 생물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무장된 성도는 검은 말 탄 자가 영광을 가릴 때 넘어가지 않고 승리합니다. 검은 말 탄 자의 해함을 받지 않도록 보존됩니다. 그것이 6절의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입니다.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것이 없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곡식 한 되는 10 오멜입니다. 10 오멜은 10명이 각각 한 오멜씩 먹을 수 있는 하루 양식입니다(출 16:16). 한 사람당 1 오멜을 하루 양식으로 먹는 것은 배부러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근으로 인해 어려운 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귀한 때에 양식을 사먹으려면 검은

말 탄 자에 의해서 사먹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1,260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의 사역 시 되어 질 사건인 전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하는 역사를 미리 알게 한 것입니다. 그 환란 날에 온 세계에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되면 아무 말할 수 없는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 날에는 기존의 식량창고에 쌓아 둔 모든 식량이 식량 메이저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식량을 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환란 날에 식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미리 세계 식량기구도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 ‘기름’은 감람유를 가리킵니다. 출 27:20에 감람열매를 으개서 나온 감람기름으로 성소를 바쳤습니다. 감람유는 손상시키지 말라는 것은 감람유 같은 성도는 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감람유 같은 성도는 기근이 자신을 으깨고 깨뜨리는 복된 역사로 됩니다. 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 그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전혀 먹을 것을 살 수 없으니 이것이 감람열매인 자신들을 으개는 복된 역사로 여깁니다. 그러한 으개지는 것으로 인해서 검거나 신앙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영적인 수준과 밝음이 있으면 그 신앙이 감람유입니다. 으개지는 것이 있어야만 성소를 밝히는 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으개지는 고통을 통해 주님이 나를 신부로 데려가시는 역사로 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면 ‘감람유는 해지 말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요한복음 2장의 물로 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먹는 것이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최고로 복된 영광을 받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복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의 어린양의 혼인식에 들어갈 자는 물로 된 포도주, 곧 영광의 복음을, 첫째 부활의 진리를 먹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물로 된 포도주를 받아먹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나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임해주시기 위해서 7년 환란을 주신 것과 약한 자를 세워서 순교시키시는 역사로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포도주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람유 신앙과 물로 된 포도주의 영광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III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26)

교회 본질(구원)에 대한 예언

〈지난호에 이어서〉

서 룬/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의미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제사장이었다. 기원 전 597년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다. 그는 기원 전 593년 25세 때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으며, 27년 후 52세 되던 해까지 약 22년간을 선지자로 활약하였다. 에스겔서의 핵심내용은 ‘환상’과 ‘파수꾼’에 대한 것으로, 그의 메시지는 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② 열방들에 대한 심판 ③ 이스라엘의 회복 ④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①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회개문)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오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② 물이 북쪽에서 오르더니(성막물)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오 물을 건너게 하시니

③ 물이 무릎에 오르고(번제단)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오 물을 건너게 하시니 ④ 물이 허리에 오르고(물두멍)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⑤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성막) 그 물이 창일하여 해일 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내가 물이 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내려바라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라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임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그 사람이 그가 보게 될 모든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 사람은 성전 벽부터 성전의 내부까지 전부 측량하고 나중에는 성전 안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각 단계마다 차오르는 것을 측량했는데, 그 물이 결국 강물이 되어 죽어 있는 바다(사해, 死海)를 소성시켜 물고기들이 노닐고 과실나무가 강둑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게 된다(겔 47:1-12). 우리는 이 예언서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성전 문부터 시작하여 측량하여 가는 다섯 단계는 성막의 회막문, 성막물,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성소와 지성소)을 의미하며, 물과 측량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물은 은혜의 물로 회복의 역사를 의미하고, 측량하는 자는 주님을 의미한다.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그 진멸과 개뿔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쫄리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므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①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회개문)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오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② 물이 북쪽에서 오르더니(성막물)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오 물을 건너게 하시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겔11:1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메마르고 죽어 있는 세상을 향해 복음이 흘러들어가 타락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찬 예언의 메시지이다.

1. 구원의 서정(Direction)을 통한 믿음의 분량

위의 본문 중 요한계시록 11:1-2절 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내려바라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라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임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말하며, 죽어 있는 바다는 사해를 염두에 둔 말인데 이는 타락한 세상(구원이 없는 죽은 세상)을 뜻한다. 이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 본질을 회복시켜, 믿음의 백성들이 성막의 영성을 통해 자기의 믿음의 단계를 되돌아보고 각자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룰 것을 예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겔 2:3).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막론하고 다 진정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배(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그와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이 변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구체적 예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타락한 이 세상을 소성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는 믿음의 과정을 성전의 각 단계를 통하여 알려주며, 그 단계마다 하나님은 정화하게 측량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 단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중지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큼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르고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요 7:38).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담임 이규필 목사 (홍신대학 이사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예희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기 목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현대아파트A상가2층) H·P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합동모수 총회장)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성국 목사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뱀내정터로4, 3층(신천동)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고정규 목사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담임 장승현 목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62-5(봉교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발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담임 사금현 목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담임 장한국 목사 (진리총회장)

경기도 의정부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오후 8:00 금요 기도회오후 9:00 2시 기도회매일(월~토)오후 2:00

담임 이정민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 목양칼럼 22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지난호에 이어서)

이 생명이 가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이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이 사 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 니다. 이 생명이 율법에서 우리를 건지 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이 모든 죄와 실존하는 죄의 세력인 원수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생명이 부요함이요 건강함이요 축복이요 형통함이요 영생이요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요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요 팔복이요 예수 그리스 도이십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 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지 식)에 있던 이 생명을 믿음으로 마음 에 영접한다면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살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 으면서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하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나타나 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 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히 4: 2).

우리가 이 놀랍고 풍성한 생명으로 인해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욱 굶주려 야 합니다. 방자가 아비 집을 떠나 모 든 것을 허비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 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는 것이 굶주림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로 인 해 고통 받으며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 는 사람이 이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매일매일 돼지가 먹는 쥐엄 열 매로 배를 채우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 아 아직 자신 안에 계신 주님께 의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영의 사람)이 만족이 없다고 다 굶주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족 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어 왔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만 되어도 주 님을 의지하여, 금방 풍성한 생명을 얻 어 만족할 수 있을 텐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사들은 항상 배가 불러 있습 니다.

“

하나를 미워하든가 하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자신이 밖으로 나가든 주님이 나가든 양자 택일해야 합니다

”

우리는 자기 안에서만 만족이 없어 야 할 뿐 아니라 거저 나사로 처럼 더 욱 굶주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 안에 살아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든지 하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든 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자신이 밖으로 나가든 주 님이 나가든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사 갈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그 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 분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누가 이사 들어와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놀랍고 풍성한 생명이 신 주님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 누가 살기를 원

하십니까? 주님입니까? 그렇다면 자신 (거듭나기 전의 옛사람)을 포기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지 마시고 미워하십시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 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지금까지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로 인한 고통으로 만 족하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변화시키 고자 자신이 노력하지 말고 도리어 포 기하시고 자신(이미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옛사람-자아)을 버린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만 사실 것입니다.

19.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 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히 12: 4).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 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 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 11) 고 하신 같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 문입니다.

죄와 원수마귀를 싸워 이기기 위해 서는 우리의 피가 아닌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에는 원죄와 유한한 생명, 저주받은 썩어질 생명이 있고 주님의 보혈에는 죄가 없 는 영원한 생명,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므로 죄와 원수마귀를 대항해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 의 피를 다 흘리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자 기의 피를 다 흘려서 자기의 생명(혼) 이 다한 사람만이 그제서야 주님의 보 혈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혼, 자기의 피)을 구원코자 하면 (영, 주의 보혈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혼, 자기의 피)을 잃으면 (영, 주의 보혈을) 구원하리라”(막 8: 3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혼, 자기의 피)을 사랑하는 자는 (영, 주의 보혈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혼, 자기의 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 주의 보혈을) 보 존하리라”(요 12: 24-25).

젊은교회로 가자

한국교회는 이미 큰 변화의 물줄기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휩쓸려 들어가 표류하고 있다.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인 구 변동, 저출산, 사회경제적 문제, 교회의 신뢰 하락 등으로 젊은 세대는 교회를 외면한다. 대부분의 신학대학원은 미답이다. 성직자는 늘어나는데, 교인은 줄고 있다.

그런가하면 취업과 연애, 여가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른바 ‘N포세 대’라는 용어는 3포(연애, 결혼, 출산)와 5 포(3포에 내집, 인간관계 추가)를 넘어 꿈, 희망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대 세대를 말하는데, 이 신조어는 쓰 인 지 수년이 지나 이제는 일상적 용어가 됐다.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들은 연애 결 혼 출산 등에서 출발해 희망과 삶까지 확 산돼 안타까운 실정이다.

많은 젊은이와 신학생이 취업이나 일거 리를 찾지 못하고 알바를 전전한다. 이렇 게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하기에 정작 청 년이 식비나 주거비를 마련하느라 제대로 취업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아우성이 여 기 저기서 들린다. 주변의 가난한 젊은이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주거비를 고민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교회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런 청년 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물론 말씀과 기도도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구체적으로 손길을 펼쳐보면 어떨까? 선한 사 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손길을 펴고 선을 행한 것처럼 청 년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손길이 절실하다.

고령화의 기로에 선 교회가 ‘젊 은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쳐 야 한다. 교회가 다음세대 문제에 구체적 행동으로 접근한다면 청년 들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일꾼으로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안되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의도적으러라도 사람을 세우고 권한을 위 임해줘야 한다.

젊은 구성원들과 정보와 비전을 교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청년문제 에 다양한 관심을 갖고 다가가면 청년 들이 교회 공동체에 지체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젊은이들을 품고 다시 뛰게 할 교회의 대안은 없는 것인가? 얼마전 여름,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기위하여 자신 바자회를 열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활발 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행 사는 성공적이었다. 그래서인지 많은 청년 들은 제주도 수련회를 떠나 은혜가운데 마치고 되었다. 기존 교회들이 젊은이들에

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관 심을 넘어 지원이나 투자에는 인색하다. 젊음과 열정만 있는 그들을 위한 투자나 기금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젊은교회, 청년기금’을 제안한 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바자와 커피판매 등이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 수 익에 후원금을 더해 초기 자금을 마련한 다.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켜 청년이 자 발적이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 정관을 만 들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건강한 작 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회에 적극적 참 여와 믿음의 계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젊은이들을 신뢰하며 쌓은 믿음 의 공동체야말로 잠든 청년도 깨우고 교 회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젊은교 회, 청년기금’의 청년사역 프로젝트는 젊 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 으로 젊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 을 그대로 걷게 하자는 뜻에서 시작하면 좋을 듯하다.

청년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을 돌보는 사역에 주력하고 있는 성북중앙교회는 청 년들이 주거비와 학자금대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발견하고 교회내 카 페에서 얻은 수익금을 청년기금으로 사용

‘젊은교회, 청년기금’의 청년사 역 프로젝트는 교회를 젊고 역동 성있게 만든다. 교회를 건강한 미 래로 나가게 만든다. ‘젊은교회 청년기금’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 이든 상관없다. 이제라도 시작하 면 미래가 좋을 듯하다.

하는데, 이른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 년기금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카페 수익 은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와 사립대 등 지 역사회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기금 을 지원받으려면 교회의 교인 자격 및 청 년위원회 회원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거비뿐 아니라 다른 용도(학자금 등)로 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 수령 후 지 원금의 사용 여부를 담당 교역자에게 알 려줘야 한다. 신청자는 지원 금액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갖고 교회는 신청자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10년 이상을 고시촌의 수험생들에 게 매일 ‘새벽밥나눔’을 통해 무료 아침을 제공해온 노량진 강남교회도 있다. 푸른 꿈을 안고 공부하는 지체들에게 교회가 함께 꿈을 실어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식사하게 한다. 그



이효상 목사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래서 십여년째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되 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는 다양하다. ‘나눔카페’ 를 청년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 을 청년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혼남 녀의 건전한 교제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 해 2013년부터 ‘꼴라’이라는 사역을 시작 하여 500여명이 참여했고 30여명이 가정 을 꾸리게 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젊은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더 나아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을 긴급 지원하는 ‘희년마을기 금’을 운영하고 있는 함께하는 교 회, 예수마을교회 사역은 특별하 다. 교회는 청년부 소속 누구라도 SOS를 쳐 오면 한 달 50만원(1년 60만원) 한도 내에서 즉시 기금을 지원한다. 심사도 하지 않는다. ‘물 지도 따지지 않고’ 청년을 믿어 주는 셈이다. 이자도 따로 없다.

지원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거나 눈치를 주지도 않는다.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도 따로 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상 지원이다.

“믿어주고 믿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이런 ‘젊은교 회, 청년기금’의 청년사역 프로젝트는 교 회를 젊고 역동성있게 만든다. 교회를 건 강한 미래로 나가게 만든다. ‘젊은교회 청 년기금’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 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미래가 좋을 듯하 다.

젊은이들이 물려오는 교회, 그래서 젊은 이들이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 는 그런 교회가 그립다. 교회의 본질은 지 역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재를 기르는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닐까 싶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주일 예배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視務牧師 서명범 同事牧師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일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담임 김선우 목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설 목사

충남 홍성군 흥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담임 박완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베엘중앙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능력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

담임 최순란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동급편정-1급 ~3급자 환영)

원장 박순종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녹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일 예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홍형표 목사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속(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새에덴교회 설립기념 30주년 감사예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등 축하 메시지



경기도 용인 죽전에 위치한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11월 5일 저녁 7시 30분 감사예배를 드렸다.

30주년을 맞이한 이날 기념예배는 '받은 은혜, 섬김과 나눔'을 주제로 드려진 이날 예배는 담임인 소강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관선 목사(산정현교회)의 대표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박준근 목사(남부전원교회)가 봉독한 에스겔 22장 30-31절 말씀을 통하여 이승희 총회장은 '이 땅을 위하여 일어나라'라는 제명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승희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펼칠 교회를 찾고 계시는 데 새에덴교회가 하나님께서 찾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세상은 정진없이 무너지고 있으며,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소리없이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설교했다.

새에덴교회 담임인 소강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에덴교회는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으로 시작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으며 성령님의 부축하심이 없이 걸어온 적이 없다"며 회고했다.

소 목사는 "30주년 설립기념 감사예배를 앞두고 대형체육관이나 야외운동장에서 대규모로 할까도 생각해 봤고 올해 헌당을 하려고 계획도 했다. 그러나 여러 모양으로 사회적 비판과 공격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초상이 제 마음 속에 드리워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마음 속에 '우리 교회에 30년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섬김과 나눔으로 보답해야겠다'는 감동을 주셨으며, 3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헌물과 성도들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실천하고 계신 새에덴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축하를 전했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특별히 30주년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돕는 섬김과 나눔의 행사를 갖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새에덴교회가 우리 사회의 빛으로 소금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여의도순복음 이영훈 총회장, 백석대 설립자 장중현 목사, 백군기 용인시장, 예장합동 부총회장 김중준 목사, 광신대 정규남 총장, 예장합동 최우식 총무가 축사로 축하했으며, 경기남노회장 이우행 목사와 전 농림부 장관 김영진 장로,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 단국대 이사장 장중식 장로가 격려사로 격려했다.

특별기도 순서로는 오인호 목사(창대교회), 이은철 목사(강화임마누엘교회), 최병철 장로(중심교회), 각각 미래 새에덴교회를 위해, 총회와 한국교회 생태계를 위해, 대통령과 경기회복 남북평화를 위해 특별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진 후 서기행 목사(경중총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예배에서는 소강석 목사가 조용기 목사, 김장환 목사, 홍정이 목사, 서기행 목사, 김명구 장로, 김영진 장로, 김진표 장로, 황우여 장로, 채의송 장로, 서철원 박사, 박정하 장로, 조민제 회장, 한용길 시장, 감경철 회장, 천영호 장로, 김명전 대표, 서헌재 박사에게 특별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새에덴교회 성도들 중에 30년 근속패, 25년 근속패, 자녀 25년 근속패가 수여하며 헌신과 수고에 감사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한국인 최초 '세계종교지도자상' 수상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회 주최 올해의 인물상 34년째 시상

올해의 인물상을 수여해 왔으며 수상자 중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등 미국 정치인들을 비롯 세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시상식은 이영훈 목사 비롯 올해의 여성에 로라 카렌 뉴욕 주 낮소카운티 시장, 올해의 관사에 마가렛 그레이 판사, 올해의 변호사에 그렉 라사 변호사 등 1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영훈 목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아시아인과 소수 민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온 AAC 제3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큰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또 "AAC는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를 위해 사회 교육 문화 및 다양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은 중남미를 비롯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빈곤과 에이즈의 퇴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AAC의 마이클 블룸버그 의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나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꿈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소망한다. 그리고 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한미지도자기도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한미 우호와 남북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하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11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플러싱 대동원회장에서 열린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회' (Asian American Congress, AAC) 주최 올해의 인물상 시상식에서 '세계종교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영훈 목사는 한미기독교지도자기도회를 꾸준히 개최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에 기여하고 남북한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처음 제정된 세계종교지도자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AAC는 올해로 설립된 지 34년 된 단체로 해마다 미국 사회를 빛낸 각 분야의 인물들에게

CTS 창사 23주년 기념음악회 <2018 희망! 대한민국> 성료

음악계의 거장 윤학원 장로의 지휘로 CTS 예술단 연합으로 하모니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기독교TV(회장'김경철)가 음악을 통한 문화사역을 위해 창단한 CTS예술단(총감독 윤학원)이, CTS창사 23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희망! 대한민국"을 KBS에서 8일 성료했다.

이날 공연에는 CTS예술단에 소속된 CTS교향악단(지휘/단장 동형춘), CTS오카리나오케스트라(지휘/단장 홍광일), CTS장로합창단(지휘 박성일, 단장 주준호), CTS권사합창단(지휘 하천송, 단장 최윤희), CTS서울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혜림 / 단장 박경희) 6개 단체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슬', 'GAUDEAMUS!(기쁨의 찬양)', '복 있는 사람' 등을 연주하고, 400여명



의 합창단이(윤학원 장로 지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또 오라토리오 전문가수 소프라노 석현수와 상명대학교 특임교수 테너 이정원이 특별출연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기도문'을 노래했다.

CTS 김경철 회장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CTS가 영상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전하게 된 지 23

어린이전도협회 성탄절 교사 강습회

다양한 찬양곡과 율동 프로그램 선보여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지난 3일(토) 각 교회 교육부 교사를 대상으로 2018년 성탄절 교사 강습회를 개최했다. 교사 강습회는 한국어와 영어권 교사를 2트랙으로 나눠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특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숙영 전도사(LA사랑의교회 교육담당)가 진행한 성탄절 어린이 찬양곡 배우기와 'Joy to the World'와 'We three Kings' 율동 강습시간은 강사와 참석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열기를 더했다.

이날 강습은 △음악과 찬양-어린이 성탄절 찬양, '찬양과 율동', '뮤지컬과 드라마 시시경과 자료-가스펠 매직', '가스펠 풍선', '메시지 시시경과 자료소개' △특별활동-성탄절 상징물, '창작활동', '해피 크리스마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전도협회는 성탄절 어린이 율동으로 △크리스마스 댄스(유치부) △멋진 마음(유치부/초등부) △무슨 일이야(유치/초등부) △난 깜짝 놀랐



지(유치부) △깊은 어둠이 내린 밤(전체용)을 추천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율동프로그램 제목을 검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2-1544 클라라 조 기자

축 추수감사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www.mokpodream.org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알려하시는 교회

2018년 2명 이상 전도합니다.

예/배/시/간

- 주일 1부예배 (일) 오전 7시 30분
- 주일 2부예배 (일) 오전 11시
- 주일밤 찬양예배 (일) 저녁 7시 30분
- 삼일밤 예배 (수) 저녁 7시 30분
- 금요일아침예배 (금) 저녁 9시
- 새벽기도회 새벽 5시
- 오후기도회 오후 3시
- 저녁기도회 저녁 9시
- 철야기도회 새벽 0시 30분

담임목사 이요셉

주소: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연산동) 전화/ (061) 277-0496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1번, 600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시9:1)

http://www.mokpojuan.com

섬기는분

부 목 사 모정선, 박민수, 성성수, 모성운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안윤기, 김진희, 김미경

협동 목사 장장화(은퇴)

전-도 사 전영욱, 추정희, 송선재, 띠(베트남신학교 유학)

시 무 장 로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모상후, 송현중

협동 장로 이병화

은퇴 장로 고재현, 원복희, 정광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을 행복하게

예/배/시/간

- 주일낮예배 1회 오전 8:00
- 3회 오전 11:30
- 주일밤예배 오후 7:00
- 수요예배 오후 7:30 (겨울 7:00)
- 새벽예배 오전 5:00

담임목사 모상련

본교회 :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EL. 061)272-4908, FAX:(061)276-1006

남약배당 : 목포시 남약2로 52번길 남약크리치아동 301 TEL. 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일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칼빈의 설교관(說敎觀) 6

〈지난호 이어서〉

또한 미가서 강해(講解)(미가서 3장 9절-10절)에서 이렇게 말했다.“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직무는 사람들의 죄를 밝히되, 그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고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불쾌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도리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말씀의 칼이 우리의 심장 깊은 곳을 찌르고 우리의 악한 충동(衝動)을 다 베어내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유익(有益)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달콤하고 안위(安慰)에 찬 죽음이입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도망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은 자기들의 정의(定罪)만을 증가(增加)시키는 것입니다.....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멸(滅)하기까지 우리를 찌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칼빈은 설교자의 설교(說敎)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傳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 자신은 그 말씀을 변경(變改)할 수 없고 청중(聽衆)은 그 말씀을 거부(拒否)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III. 나가는 말

칼빈의 설교는 성경의 충실한 해설과 적용이었다. 그의 설교는 설교자로서의 자기 인식과 설교에 대한 성경적 확신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강해설교(講解說敎)에 집중했다.

이 사역에 충실하기 위해 그는 성경의 적확(適確)한 뜻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칼빈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눅10:16)라는 말씀을 목사의 말씀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임이며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신앙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또한 설교란, 성경이 충실히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 설명(說明)되어지고 가르쳐 질때, 즉 강해(講解)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성경 강설(講說, 강해(講解))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다.

그는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종”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생애를 말씀 사역에 헌신했다. 설교자의 자기 인식 없이는 설교 사역의 변혁도 없는 것이다.

설교자의 자기 인식과 설교에 대한 개혁자의 인식을 재발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설교 사역을 새롭게 변혁시킬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불행히도 설교 사역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설교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가고 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서명범 목사
예수패밀리처치 담임목사

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입”이라는 설교자의 자기 인식이 없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눅10:16)라는 말씀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오늘날 교인(敎人)들의 취미(趣味)와 즐거움에 영합(迎合)하여 자기 인기(人氣)를 위해 온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설교자들은 이런 칼빈의 음성(聲音)을 들어 회개(悔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판단(判斷)이나 하려하고 경청(傾聽)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거절하는 자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 보다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려는 자들이 많은 마지막 시대(딤후 4:3-4)일수록 개혁자 칼빈의 설교(說敎)에 대한 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개혁자 칼빈의 설교관(說敎觀)이 오늘 우리들의 사역에 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해 동안 제네바에서 칼빈의 동료로 활동했던 니콜라스 데 갈라르(Nicolas des Gallars)의 말을 끝으로 이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니콜라스 데 갈라르(Nicolas des Gallars)는 칼빈의 목회활동을 다음 말로 요약했다.

“얼마나 많은 일과, 얼마나 많은 철야와 얼마나 많은 염려를 그는 감당했는가, 얼마나 날카롭게 얼마나 민감하게 그는 위험을 예견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그는 이 위험들을 피했는가, 얼마나 신실하고 지성적으로 모든 이에게 관심을 가졌던가, 어떤 친절과 감사로 자기에게 말 걸어오는 자들을 영접했는가,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솔직히 그는 중대한 질문을 자기에게 해 오는 자들에게 대답했는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내 놓는 난관과 문제들을 사적이건 공적이건 얼마나 현명하게 해결하였던가,

얼마나 부드럽게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낙담하며 용기를 잃은 자를 부추겼던가, 어떤 열심으로 그는 교만한 자들과 고집불통들을 쓰러뜨렸던가, 그가 불행한 참아 낸 것은 얼마나 큰 영혼의 위대함인가, 그가 변역 속에서 어떤 절제로 행동했는가, 얼마나 능란하게 또 도약적으로 그가 참되고 신실한 종의 모든 의무에 전념했는가, 나는 이 모든 것을 분명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끝-

제2장 사도영성운동의성경적기초(25)

영성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성화와 구원’

〈지난호 이어서〉

영성생활의 실체는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이다. ‘구원’이란 용어는 인간의 궁극적 행복, 영생 및 영광 속의 삶이란 표현과 동의어이다.

그리고 ‘성화’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영성생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구원이나 성화는 어느 순간에 특수한 완성의 정도를 언급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상을 제시하셨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막 12:3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초자연적인 생명의 완성이 ‘영성생활의 목표’이고 ‘영성신학의 탐구영역’이다. 이성과 같이 고찰한 영성생활의 목

표를 종합해 보면 영성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성은 개발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영성훈련의 방법은 다양하다. 영성훈련의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영성훈련을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즉, 대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중심훈련’,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중심 훈련’, 일정기간동안 기도원이거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하는 ‘집중수련’이 있다. 강의중심훈련은 대중적이며 많은 사람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 사람 한사람의 깊이 있는 영성지도와 훈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영성훈련의 중요한 도구이자 원리인 나눔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강의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의중심훈련에는 강사의 영성 고양이 중요하며 강사의 영성에 따라 집단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집단 실습중심훈련은 수련에 참가한 각 개인과 영성을 지도하는 사람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며 영성훈련을 할 때 개인자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영성체감과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진정한 만남이 경험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또한 주 1회 정도의 대화중심의 훈련이기에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개인의 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소집단



홍향표(요한) 목사
사도영성신학 학장

실습중심훈련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훈련된 인도자가 있어야 목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

일정기간동안 구별된 장소에서 훈련하는 집중수련은 도심과 일터를 떠나 자연환경 속에서 한가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성수련의 내용을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수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훈련은 수도원생활의 축소된 경험이며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 인간관계속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다음호에 계속)

| 여름타작마당 3 |

알곡과 쪽정리로 이미 심판 전에 결정 되어!

〈지난호 이어서〉

막13:28-37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하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때에 굵은 팥방울을 흘리면서 보리 추수를 한다. 추수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계절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들의 추수기는 약력으로 4월에서 5월이 된다. 기후 변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내륙 지방은 4월 초에 추수를 시작하여 타작을 한다. 그리고 해안 지방에서는 대략 4월 8일 경에 시작한다. 그리고 산지에서는 4월 중순경에 타작마당이 시작된다. 이 기간은 대략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의 기간은 약 50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을 어디에 비유를 두는가 하면 50일째인 77절인 맥추절을 말한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맥추절을 사실상 잘못 지키고 있다. 그것은 막연히 보리 추수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맥추절을 지키는데 있어서 보리, 밀 추수 때가 되면 무조건 맥추감사 주일을 지켜왔다. 물론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아서는 그렇게 지킬 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맥추절의 개념은 오순절의 개념이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면 날이 77절이요, 맥추절이다. 이 날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날을 계산해 보면, 맥추절과는 상관이 없다. 날짜 상으로 맞지 않는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정확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날부

터 계산해서 50일 만에 지켜야 한다.

그때에 보리와 밀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관계없이 지켜야 한다. 물론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맥추절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오순절은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 늦은 비가 온다. 이 늦은 비는 결실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만일 이 늦은 비가 늦게 오거나 비의 양이 적으면 추수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 이 성령은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알곡이 되는 결정적인 성령충만함을 다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전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오순절 성령과 마지막에 다시

정기남 목사
편집인



빛나고 윤기가 있는 아주 맛이 나는 늦은 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늦은 비는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산 옆이나 언덕위에 설치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곡과 쪽정이 잘 분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불 때, 타작을 하는데, 쪽정은 다 날려 가버린다. 그때에 농부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의 따라서 알곡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본인이 어떻게 하였느냐의 따라서 알곡과 쪽정리로 심판 때에 결정이 이미 났다. 쪽정은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만 주인 앞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 애독자 여러분께

본지는 구독료 및 광고료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부흥과 발전,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전 직원일동이 기도드립니다. 신문은 애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선교비, 광고료 또는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는 올 10월이면 창간 13주년을 맞이합니다. 본지는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국내외로 복음과 교회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http://www.jtntv.kr> & <http://www.cpi.kr> 두 곳에서 jtntv로 또는 cpi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교계소식과 각 교회의 주일예배 설교를 영상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소망합니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 07837(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실천합니다.)

지저스타임즈 대표 정기남 목사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1년 구독료 50,000원, 신문 발송을 후원하실 분은 1구좌 1만원부터~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소와 전화 번호를 본사 대표 010-5468-6574(정기남 목사)로 문자주시면 신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김평호 목사 10월~11월 부흥성회



김평호 목사
· 열두광주리교회 목사
· 열두광주리기도원 한장
· 성헌여자부흥사역 총재
· 총회 부흥사역 대표회장

말씀의 불!!
찬양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기름부으심!!

◎ 집 회 일 정 ◎

10월	11월
- 10월1일-10월4일 주사영기도원(영선)	- 11월5일-11월8일 평화기도원(대구)
- 10월6일-10월11일 열두광주리기도원(충선)	- 11월12일-11월15일 총회부흥회(세종)
- 10월15일-10월18일 새비전교회(부산)	- 11월19일-11월22일 성화산기도원
- 10월22일-10월25일 갯세마네기도원(전원)	- 11월28일-11월29일 열방선교교회(대구)
- 10월29일-11월1일 열두광주리기도원(경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두광주리교회(기도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860-29
집회문의 김평호목사 : 010-8411-0191

웨신 2018 총동문회 1박 2일간 단합대회 열어

정인찬 총장, 웨신상 및 웨신목회자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 씩 전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정인찬 박사) 총동문회(회장 박철규 목사)는 지난 11월 1-2일 이틀간 본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1부 예배 및 웨신상 수여식을 갖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서로가 보고 싶었다며 안부를 묻고 화기애애한 교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1부 서기 박경철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부회장 문수석 목사가 기도문을, 회장 박철규 목사가 고전 16:15-18절을 인용 "아름다운 모임"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박 회장은 "주의 종은 꼭 필요한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 마

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면 이과 같은 동문이 되자"고 전했다며, 은퇴교수 이성재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총무 정석중 목사의 사회로 총장 정인찬 박사의 축사와 김성욱 교수의 학교소식, 원우회장 박성욱 전도사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아울러 웨신대 재학생이며 찬양사역자인 임해진 전도사의 특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다. 따라서 본신대원 총장 정인찬 박사는 태국에서 15년째 선교한 후 현재는 충남 천안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150여 명의 태국인들에게 복음전하고 있는 오승희 선교사에게 웨신대원상 수여를, 예방교회, 예방복지센터를 설립하여 많은 장애우를 사

랑으로 사역하고 있는 홍충기 목사에게 웨스트민스터목회자상을 수여하고 아울러 각각 50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이어서 오승희 선교사가 시무하는 태국인 성도들의 특송이 있었다.

2부 순서로 감동적인 이정식 교수의 색소폰연주, 노준환교수의 클래식 기타연주 등이 약 1시간 30분여 동안 이어진 가운데 많은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이어 화기에애한 동문들은 삼삼오오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모교를 둘러 보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3부는 친교의 시간을 갖고, 숙소로 이동하여 호텔에서 저녁 만찬을 가진 뒤 각자 자유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 2일 아침 7시 30분 아침식사를 한



견고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인찬 총장은 인사에서 "저희 대학원대학교 자람은 좋은 동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며, 50년의 빛나는 역사를 가졌고, 신학과 학교설립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고 그 설립취지를 향상시켜 온 것도 여러 동문들의 헌신적 노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수학 학생 수가 절대 부족한 때에도 많은 홍보, 후원으로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등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본 대학원대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의 5대 표어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동문 없는 학교도 존재할 수 없고, 학교 없는 동문도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두 가지 레일처럼 함께 한국교회의 미래역사를 만들어 가는 공동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했다.

따라서 여러 동문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심이 있기를 전 교수들과 직원들과 학생들이 기도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고 삼겹살은 굵을 수 없다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동문과 학교가 삼겹살로 연합하여 나가면 한국교회사에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줄로 믿는다면 인사 흥과 더불어 모교인 웨신도 더욱더



일상교회 최정수 목사 임당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대노회(노회장 최정수 목사)는 지난 11월 10일(토) 오후 2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소재 日常教會 분당에서 임당예배를 드렸다.

임당예배는 담임 최정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이명우 목사가 기도문을, 본교회 성도들의 특송, 웨신총회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에베소서 2:7-10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작품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허창범 총회장은 "일상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나의 집이라며 담전 3:1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면서 임당예배를 드리는 최정수 목사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을 기원"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 부어 세우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며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며, 일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인정받는 교회, 예수그리스도의 걸작품인 교회, 명품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데 힘써나갈 것을 바라며 축복을 기원했다. 이어 하태수 목사가 봉헌기도를, 박성환 교수의 축사, 국악찬양에 이경해 목사, 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일상교회 최정수 목사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아름답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렸으며, 낮과 밤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상교회(EveryDat Church) 성도들이 되는데 힘써나갈 것을 다짐했다.

따라서 일상교회 최정수 담임목사는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처럼 다가가며,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면서 목양일별"의 취지를 밝혔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 2018세대공감 행복나눔 문화대축제

세대간 소통과 화합, 사랑과 존경의 공동체 조성 및 위기조손 가정 지원

2018 세대공감 행복나눔 문화대축제가 10월 30일(화) 오전10시30분 춘천북부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되었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관장 박재호)은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 사단법인 사랑나눔춘천지회가 지난해 춘천시로부터 수탁받아 사랑과 나눔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대간 소통과 화합, 사랑과 존경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복지사각의 위기 조손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의 주최는 춘천MBC, 사)사랑나눔 춘천지회, 강원사회복지공동모

금회, 주관은 춘천북부노인복지관, 춘천시어린이집연합회, 후원은 춘천시,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일보, 춘천축산농협,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춘천로타리클럽, 협찬은 춘천우유, 대원당이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만기 춘천시 부시장, 김동섭 춘천MBC 대표이사, 이수형 목사(사랑나눔춘천지회 대표이사), 한중일 춘천시의회 부의장 등 다수의 기관, 단체장과 사회복지관계자, 시민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18 세대공감 행복나눔 문화대축제는 소양초등학교 1학년 1반의 난

타, 춘천중학교 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 춘천중학교 윈드 앙상블의 관현악, 한솔어린이집 소나무반의 멜로디안, 월드비전춘천어린이집 튠티반의 장구 식전공연 후 국민의례, 내빈 소개, 행복사진공모전 시상식이 있었다. 김동섭 춘천MBC 대표이사의 개회사, 이수형 사랑나눔 춘천지회 대표이사의 인사말, 한중일 춘천시의회 부의장의 축사 후 내빈들의 나눔 릴레이 성금모금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두빛나래 합창단, 사우어린이집, 사회문화어린이집, 소양강댐하늬늬복지센터, 월드비전춘천어린이집, 자자나무어린이집,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노

래교실, 하늘어린이집, 한솔어린이집, 호반어린이집이 참좋은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두 곡을 합창하였다.

세대공감 문화공연에서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난타,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의 부채춤,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크리센도, 순복음춘천교회 빌립보찬양대의 합창, 춘천북부노인복지관 톱기타반의 연주, 소양강새마을금고 합창단의 합창, 사랑샘의 크로마프 연주가 있었다.

세대공감 나눔행사로 나눔봉투의 희망메시지 전시, 행복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세대공감 행복나눔 체



춘천중학교 윈드 앙상블의 관현악 연주 모습.

험부스(약 30여개의 홍보, 나눔, 시식을)를 설치하였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노인으로서의 존엄과 자

주적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신장하고,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21세기 "신 노년문화" 구축으로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존중의 정

서적 충족과 자아실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로 사랑나눔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축 2018. 추수감사 & 푸른슬교회 20주년 기념

이사장·총재	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수석상임이사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사무총장	지문/연수원장	
 허창범 목사 웨신 총회장	 전영춘 목사 자문	 정기환 목사 자문	 이영풍 목사 자문	 이규필 목사 자문	 장한국 목사 명예총재	 정대성 목사 부총재	 박정균 목사 부총재	 오종설 목사 부총재	 김창룡 목사 부총재	 박수영 목사 수석상임회장	 이은자 목사 수석상임회장	 강요셉 목사 부총재	 곽영민 목사 대표회장	 이희호 목사		
사장	자문/고문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자문/고문	상임이사	상임이사
 최순길 목사	 조영만 목사 감사단장	 백운성 목사 총무국장	 노병주 목사 상임회장	 곽동훈 목사 상임회장	 최나연 목사 상임회장	 이기학 목사 상임회장	 홍향표 목사 상임회장	 서명복 목사 상임회장	 신언창 목사 상임회장	 곽근 목사 상임회장	 이홍규 목사 운영이사	 이선한 목사 부회장	 유순욱 목사 실무회장			
대표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논설위원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상임이사	총무이사	취재부기자	운영이사	운영이사	홍보국장			
 김선우 목사 실무회장	 김부경 목사 회계	 임용선 목사 상임회장	 윤제섭 목사 실무회장	 박명미 목사 실무회장	 김창수 목사 실무회장	 배영자 목사 공동회장	 류기형 목사 공동회장	 김지연 목사 실무회장	 김정욱 목사 실무회장	 정사라 목사 공동회장	 임찬미 목사 실무회장	 성순희 목사 홍보담당				

**광주 푸른슬교회 본 신문방송 이사장 허창범 목사 시무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이사 일동과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1시 함께 동행하실 분은 본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전화 참고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02호) ☎ 032-672-3031 FAX 032-574-6574 010-5468-6574 http://jtntv.kr E-mail : jtntv@hanmail.net
연락처 이사장 : 허창범 목사(010-8604-6075), 대표이사 : 정기남 목사(010-5468-6574), 사무총장 : 곽영민 목사(010-2080-0651), 총무국장 : 백운성 목사(010-2479-7793).



2018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석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 메시아에게 부여된 능력 / 평화 공존의 삶

성경 : 이사야 11:2,6-9 찬송 : 205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법과 정의로써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전 동산을 연상케 해줍니다. 즉 본문이 보여주는 동물과 인간의 평화 공존은 구원의 때가 도래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받게 되었으므로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합니다.

제목 : 만민의 기호

성경 : 이사야 11:10 찬송 : 309

이 말은 만민이 보고 따라올 것대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행에 몰린 자들이 지팡이에 매어달린 멧돼지를 보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민21:9),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참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갈3:13).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뛰어가야 할 뜻대가 됩니다.

제목 : 유다의 이산한 자

성경 : 이사야 11:12 찬송 : 403

디아스포라(Diaspora), 즉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나라가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은 열국에 흩어져서 떠돌아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계 멸망당하였을 때, 그리고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의 귀환으로 이루어졌

으며, 또 주후 1945년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세움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목 : 유브라테 하수 위의 뜨거운 비람

성경 : 이사야 11:15 찬송 : 308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유브라테 강 너머의 남은 자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주시겠다는 의미로, 흥해 바다를 가르신 구원 사건(출14장; 속10:11)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

성경 : 이사야 12:1-6 찬송 : 256

본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며, 이사야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출애굽기 15장의 미리암의 노래와 주제가 같습니다. 구원을 감사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제목 :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 / 여호와와 날

성경 : 이사야 13:5,6 찬송 : 307

먼 나라와 하늘 가에서 온 그들은 곧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이들 나라 자신들의 힘으로 유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심판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악을 물리치시기 위해 출연히 임하실 것입니다.

제목 : 여호와와 날의 참혹함 / 메대 사람의 특성

성경 : 이사야 13:12,17-20 찬송 : 202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케 하며 오일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라'는 말은 이날의 참혹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후에는 회복의 은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포악한 사람들이로서, 전리품으로 내어놓는 은이나 금으로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목 : 아람에게 공물을 베푸시는 여호와 / 악인의 무덤지와 패자의 출

성경 : 이사야 14:15,18 찬송 : 258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다시 선택하시어 자기 고토에 두십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스

라엘의 시련이 끝나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물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선민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써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침략한 나라들을 지나치게 압제했으며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목 : 음부 / 아침의 아들 계명성

성경 : 이사야 14:9,12 찬송 : 372

이곳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죽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한다는 말은, 바벨론에 의해 죽음을 당한 자들이 바벨론 왕이 죽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벽빛을 가져오는 이 별의 표상은 가난한 신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새벽별, 계명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교만한 고대 가나안의 신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제목 : 악인의 후손의 결말 /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성경 : 이사야 14:20,26,27 찬송 : 309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대가 완전히 끊기게 될 것을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자손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했기에 이러한 것을 가장 큰 심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맛수르 사람을 파하고 발 아래 밟으시므로 그의 명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므로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목 : 뱀, 독사, 나는 불뱀 / 유다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성경 : 이사야 14:29,30 찬송 : 310

점점 커지는 적들의 위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뱀이나 독사 혹은 나는 불뱀 곧 용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장대에 높이 달린 뱀뱀, 곧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와 빈핍한 자는 막대기가 부러진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뿌리는 블레셋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매우 큰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영적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제목 :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는 모압

성경 : 이사야 15:7 찬송 : 402

그 이유는 극심한 가뭄 때문입니다. 버드나무 시내는 모압과 에돔 사이의 국경을 이루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인 가뭄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압이 암몬으로 이동할 것을 의미합니다.

제목 : 어린 양을 드린다는 표현 / 다윗의 장막의 왕위에 앉은 사람

성경 : 이사야 16:1,5 찬송 : 503

어린 양은 정복당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때 바치는 공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인

자함으로 굳게 서며,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이를 신속히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의의 완성자이신 메시아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목 : 모압의 신

성경 : 이사야 16:12 찬송 : 284

그모스와 여신 아스다라 등인데, 발루아 석비의 부조는 모압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나타났을 때부터 이 두 신을 섬겼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스다라트는 모든 대적을 정복하는 전쟁의 신인 동시에 일상 생활의 모든 면을 관여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사랑을 되찾아 처음 일들을 행하라

계2:4-5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첫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바울로 세운 초대교회인 아시아의 에베소교회는 행19:1-6에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와 안수를 통해 12여명쯤 되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고 계속 3개월간 회당에서 또 두란노 학교에서 2년간이나 심도 깊게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통해서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종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흠뻑 빠져서 이로 인한 첫사랑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한국 목사

- 예장진리 총회장
- 주사랑교회 담임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을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니, 이것이 곧 첫사랑에 의한 처음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베소교회는 종말의 때에 세워지는 금촛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금촛대 교회의 첫사랑은 초대 아시아의 에베소교회와 달리 첫재부활의 영광을 자신을 위해 하늘에 예비 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요, 이를 위해 환란을 예비하여 환란 날 순교시켜 주실 것을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충격적으로 받고 그 기쁨과 감격을 이 첫재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 재림 주님을 열렬히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금촛대 교회에서의 첫 사랑이요 처음행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금촛대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모두 이런 경험들을 다 가졌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 그리고 처음 행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내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별로 다소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그 은혜, 사랑의 주님만으로 100%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보다 더 비중 둔 것이 생겨난 것이요, 그래서 첫사랑이 식어지고 마침내 떨어뜨려버린 것입니다. 예컨대 생업에 일에 매여서, 물질에 쫓겨서, 공부가 주님보다 앞서서, 또는 자기 건강, 자기 몸을 위해서 등입니다. 이외에도 첫사랑을 저버린 것은 성령으로 하시는 진리 말씀에 100% 계속 귀 기울여야 할진대, 주님보다 자기 신앙생활의 의로써, 행함에 치우쳐서, 육적·인본적 사상, 신학 등으로 변질된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역시 첫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미 구원 받은 자요, 주님이 오른 손에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촛대 옮기는 것은 성전 밝히는 촛불이 없어짐을 가리킵니다. 내 심령 성전에 하나님 말씀의 촛불이 꺼진다면 전혀 말씀 깨달음이 없고 기쁨도 없어지지요, 또 촛대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요, 이것이 사라지면 한 치도 주의 일을 위해 내 디딜 수 없겠지요. 이는 영적 생활하는 자의 최고 최대의 고통이요 그러므로 결국 돌아가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도 보게 하십니다.

소진우 목사 2016년-2018년 성회일정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 · 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회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6년 12월**
- 4-7 주님의교회(오영석목사)
 -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8-24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 26-30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 2017년 1월**
- 2-4 거창성결교회(김성철목사)
 - 9-12 실목교회(조한희목사)
 - 16-18 풍기교회(백현기목사)
 - 23-28 (인도선교)
 - 30-2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 2017년 2월**
-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6-9 감람산기도원(이국원원장)
 - 13-17 선교지메나
 - 20-22 초대총만교회(김옥남목사)
 - 27-1 중동교회(서종표목사)

- 2017년 3월**
- 6-10 필리핀예복교회(한영배담임) 선교지 방문

- 2017년 5월**
-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8-12 네델 선교지 방문
 - 15-17 주영광교회(지재문목사)

- 21-24 사랑의빛교회(오성민목사)
- 29-31 초대교회(윤호준목사)

- 2017년 6월**
-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4-8 빛과소금교회(송영만목사)
 - 12-16 선교지(사역자메나)
 - 18-30 본교회2주연속(사역자메나)

- 2017년 4월**
- 3-5 홍주교회(고영석목사)
 - 6 오산리금식기도원(권경환원장)
 - 9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0-13 오정성화교회(이주형목사)
 - 17-18 정기노회
 - 18-20 양떼교회(정진수목사)
 - 24-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017년 7월**
-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3-6 광선수양관(한민석원장)
 - 10-12 사랑의교회(고정목목사)
 - 17-19 모리교회(조선의목사)
 - 24-28 선교지(신학영어메나)
 -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017년 8월**
- 3 안양감람산기도원(임예재원장)
 - 7-10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 11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14-17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 21-24 감람산기도원(이국원원장)
-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8-31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 2017년 9월**
- 4-8 은누리복음회(최수원회(임기호총재)
 - 11-14 교단총회
 - 18-21 풍기교회(백현기목사)
 -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5-27 비전교회(김경환목사)

- 2017년 12월**
- 4-6 삼릉교회(고정인)
 - 11-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8-21 관전예복교회(노영수목사)
 - 26-29 송구영신을위한산상기도

- 2018년 1월**
- 1-3 양평지역연합성회(최정숙목사)
 - 8-10 선대교회(황인옥목사)
 - 14 은진교회(소지영목사)
 -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5-18 배반중앙침례교회(임병원)
 - 21-24 안양성문교회(윤노원목사)
 - 29-1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 2017년 10월**
- 2-5 추석주간
 - 9-10 정기노회
 - 16-18 주사랑교회(조연우목사)
 -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30-4 인도사역자 방문주간

- 2017년 11월**
- 5-8 주안중앙교회(박용순목사)
 - 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홍목사)
 - 27-1 필리핀지역자전퍼런스

- 3월은 봄철 축복 대 심방의 달**
- 2018년 2월**
- 5-8 감람산기도원(이국원원장)
 - 1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2-17 설주간
 - 19-21 점촌교회(김우수목사)
 - 26-28 실목교회(조한희목사)

- 2018년 3월**
- 1 안양감람산금식기도원(임예재원장)
 -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018년 4월**
- 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4 공평성결교회(조재용목사)
- 9-11 산돌교회(한상길목사)
- 16-26 예복교회부흥회(소진우목사)
- 29-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018년 5월**
-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4 안양감람산기도원(임예재원장)
 - 7-10 진주기도원(김진홍원장)
 - 14 오산리금식기도원(김경환원장)
 - 16-24 미주지역부흥회
 -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6월 7월은 안식일**
- 2018년 8월**
-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 6-8 설화산기도원(노베드로원장)
 - 9-10 행복오르는교회(최석규목사)
 - 13-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0-23 감람산기도원(이국원원장)
 - 27-30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 2018년 9월**
- 2-5 온정사랑교회(홍성근목사)
 - 10-13 교단총회
 - 13 평화의동산(피준진목사)
 -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목사)

- 2018년 11월**
-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5-7 행복이넘치는교회(마영건 목사)
 - 8 안양감람산금식기도원(임예재원장)
 - 12-14 영광교회(송성준목사)
 - 15 보라비전교회(우경모 목사)
 - 18-19 성소기도원(박정원원장)
 - 21-25 은진교회(소지영목사)
 - 26 양평금식기도원
 - 29-2 선교연합집회

- 17-20 연대연합교회(박승현목사)
- 24-28 선교연합집회

- 2018년 10월**
- 1-4 다니엘교회(김경수목사)
 - 8-10 목석교회(유종수목사)
 - 12 오산리금식기도원(김경환원장)
 -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5-17 정기노회
 - 18-19 성소기도원(박정원원장)
 - 21-25 은진교회(소지영목사)
 - 26 양평금식기도원
 - 29-2 선교연합집회

- 2018년 11월**
-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5-7 행복이넘치는교회(마영건 목사)
 - 8 안양감람산금식기도원(임예재원장)
 - 12-14 영광교회(송성준목사)
 - 15 보라비전교회(우경모 목사)
 - 18-19 성소기도원(박정원원장)
 - 21-25 은진교회(소지영목사)
 - 26 양평금식기도원
 - 29-2 선교연합집회

- 2018년 12월**
-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3-5 삼릉교회(고정인목사)
 - 10-13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16-21 본교회부흥회
 - 25-29 송구영신을 위한산상기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주소: 경기도의정부시누원로40 (장암동)

